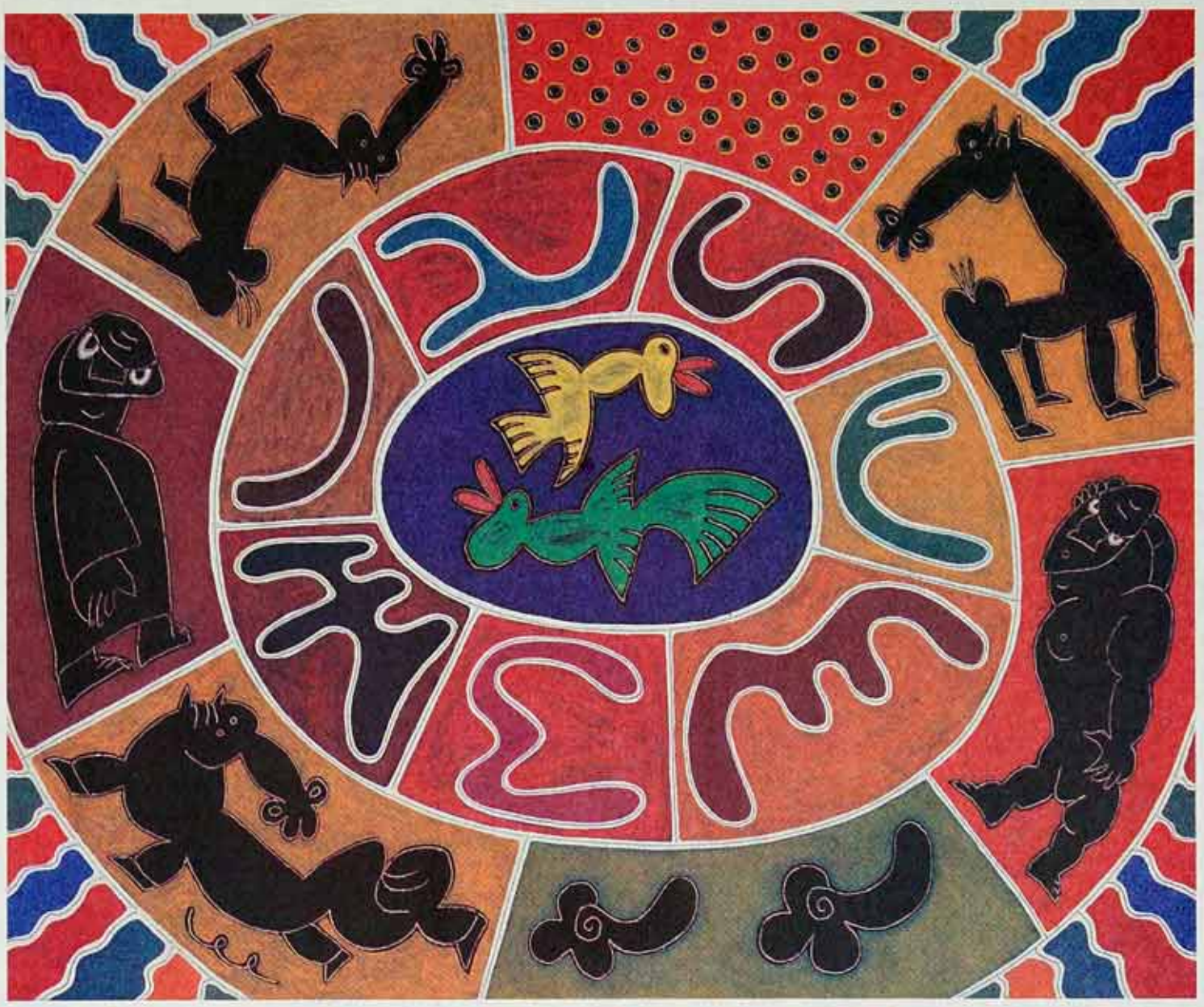
창간 1년

10월 15일

특집 Ⅱ

㉒ 축하메시지 · 휘호
㉓ 독자설문조사
㉔㉕ 불교 인터넷
㉗ 도천스님의 하루



만다라 — 기쁜 소식



이석조씨는 대구에서 태어나 독학으로 그림과 조각을 공부했다. 80년 대구형제화랑 개관전에서 그림·조각·시·사진을 동시에 발표하며 화단에 나와 개인전과 초대전, 단체전등 왕성한 활약을 통해 만다라의 현대적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삶속의 법 일심의 법 설파하기 1년 어느새 곡식과 열매 거두니…



가을햇빛 가득한 현대불교

— 고 은 〈시인 · 본지논설고문〉

2천5백년전의 야무나강 긴다강 소나강들의 여러 갈래들이 합류해서 하나의 강가강을 이루고 있는 파트나에서 생각하건대

내가 생각한다 해도 내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생각은 있으나 생각하는 나는 없단 말인가. 나라는 모양, 나라는 이름은 무엇인가.

나라는 것이 이럴 바에 부처의 법이란 무엇이겠는가. 이미 부처도 부처의 법도 아니거늘 그것을 일러 부처의 법이라 하고 있으니 옳거니 거미가 거미줄을 지어 놓고 기다리는 것이 있으리라.

강가강 기슭의 파트나.

지난 날의 마가다국 수도 파탈리푸트라. 그 뒤 마우리아왕조 아쇼카왕의 수도도 역시 파탈리푸트라, 지금의 파트나.

나는 여기에 와서 2천5백년전의 세존께서 그이의 마지막 여행으로 지친 하루를 보내신 바를 떠올렸다.

그이는 언제나 예배를 받으셨다. 황제로부터도 천민으로부터도 그러셨다.

그런데 이곳 파트나에 이르러 저자에 향하여 그이가 예배하셨다. 그이는 말씀하셨다.

"이 성은 장차 세상에 크게 알려지리라. 많은 현자들이 이곳에서 태어나리라.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리라."

아주 천연스럽게 세존께서는 80세의 노인으로 돌아가 그 도시의 운명을 확인하셨다.

과연 그곳에서의 아쇼카가 인도대륙을 하나로 만들어 부처의 법을 펼쳐왔다. 그의 아들을 실론에까지 보냈다.

어디 그 뿐인가. 이곳이야말로 많은 불교의 선지식들을 낳았던 것이다.

나는 한밤중의 거리에서 소가 네 다리를 굽히고 앉아 잠을 청하는 이 파트나에서 멀리 두고 온 조국 한반도의 불교를 떠올렸다.

지극히 힘찬 진리의 문화였다. 그러다가 지극히 아름다운 꿈의 문화였다. 고구려의 벽화를 보라. 백제의 미륵반가사유상을 보아라. 방금 물에서 건져올린 아침 태양의 빛살을 멀리 받아들인 토함산 대불의 그 오묘한 어깨에 서린 자비의 빛깔을 보아라.

그것을 이어 고려 청자의 비취빛 푸르름에 온몸이 떨려 그 떨림으로 저건너 종각의 종소리를 울려라. 28수(宿) 33천(天)이 하나로 아울러 그 종소리로 깨어나거라.

어찌 그 뿐이리요. 한 자 한 자 새겨 8만4천법문의 경판을 이마 위에 들어올리니 그것이야말로 고려의 깊은 불심(佛心) 아니고 무엇이랴.

그리하여 근세 산중의 선승들이 뼈를 갈아 공부하는 중에 외적이 국토와 인민을 짓밟을 때 과감히 일어나서 맞서 물리쳤으니 어찌 서산 사명 영규가 그들뿐이랴.

여기 한국불교 1천6백년을 받아들이는 동안 언제나 옛 법은 새로운 법으로 만나야 하였으니 과거의 법도 현대의 불교 아니고 무엇이더냐.

어느덧 고대 인도의 한 수도는 여기 서울 견지동에 이르러 부처의 새로운 법, 삶 속의 법, 일심의 법을 설파하기 어언 1년.

문득 봄 꿈을 깨니 어느새 곡식과 열매 거두는 가을 햇빛 가득한 강산으로 찬탄하고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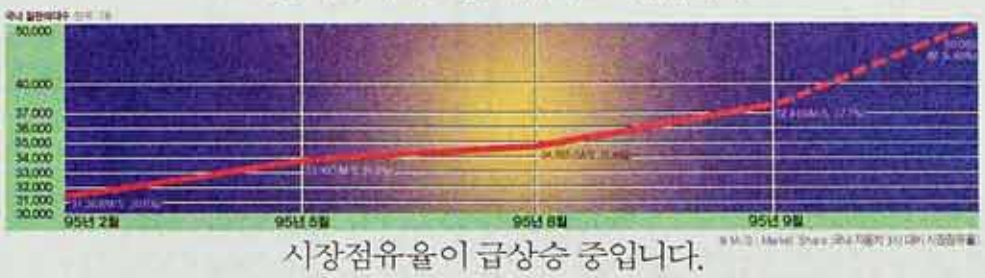
인기상승! 기아가 달린다



고객이 원하는 차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차종마다 빅히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이 급상승 중입니다.

지금, 기아를 주목해 주십시오.
기아가 점점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차종별 특성이 살아있는 전정한 풀라인업 구축,
소비자 중심의 신차개발과 잇따른 빅히트,
세계랠리와 세계시장에서 입증된 탁월한 품질,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하나로 뭉친 勞와 使…
그결과,
기아차를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시장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新기술의 힘으로, 고객 여러분의 사랑으로
지금 기아의 성장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아를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KIA 기아자동차